



Indonesia

자카르타지사

소주,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를 사로잡다

소주, 인도네시아 젊은 층을 사로잡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소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의 소주가 한식당에서 코리안 바비큐와 함께 소비됐다면, 최근에는 현지 젊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소주 칵테일 바에서 소비되고 있다. 지역별 맛집 찾기 앱인 Zomato에 따르면 소주 칵테일 바는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서부 자카르타 지역과 북부 Pantai Indah Kapuk 지역에 10여 곳 자리잡고 있다. 프랜차이즈 소주 칵테일 바도 생겨나는 등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소주 칵테일 바 관계자에 따르면 소주의 인기 요인은 현지에서 흔히 유통되는 맥주보다 도수는 높으면서 기호에 맞춰 여러 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점이다. 여성들이 마시기 쉬운 낮은 도수의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점도 하나의 인기 요인이며, 가장 일반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칵테일은 소주와 요구르트로 만든 칵테일이다.

| 현지 소주 칵테일바 및 메뉴 |



올해도 소주 수출 증가 전망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소비자들에게 음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개방형 무슬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요 도시와 관광지 등에서 비무슬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음주가 허용된다. 전체 인구 2억 6,500만 명 중 87%가 무슬림이나 13%의 비무슬림 인구 3,450만 명이 잠재적 주류 소비 가능 인구로 작지 않은 시장이다. 소주의 인기 증가로 인해 현지에서 기존에 생산되던 '바람소주' 이외에 '참좋은 소주'가 신규 출시됐다. 교민들의 경우 익숙한 맛인 한국산 소주를 찾는 경향이 있어 현지 생산 소주는 소주바, 일식주점, 펍 등에서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소주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130만 불(약 15억 4,700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올 3월 기준 소주 수출은 27만 8,000불(약 3억 3,000만 원)로 작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여 올해도 수출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지 유통 중인 현지 생산 소주 |



Key Point

특색 있는 주류가 경쟁력 있어

- 최근 인도네시아 젊은 소비층 사이에 저도수 주류, 전통주와 같이 특색 있는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어 현지 소비자의 취향에 맞고 타 주류와 차별화된 과일맛 소주 등이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관광객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도구로 주류를 소비하는 젊은 도시인이 증가해 주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